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28	04. 04	04. 011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신약통독 - 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시오.
2. 사순절(2월17~4월3일) - 경건과 신앙훈련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3. Sommerzeit 시작 - 다음 주일(28일)부터 시각이 변경됩니다.
4. 고난주간 예배(Zoom) - 아침 기도회(29~4.3일, 오전 8시) 성금요예배(4월2일, 오후 3시)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5. Fastenzeit

-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275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김남희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 행 21 : 11 - 14(신p225)..... 김남희 집사  
 (Apostelgeschichte 21:11~14)  
 설 교 Predigt ..... 누가 주인입니까? .....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288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온라인 헌금은 정용현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인 John Chrysostom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을 언급하면서 미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현재 생활의 동기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가 지금 나타나 우리 각 사람이 양심을 따라 판단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며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벌거벗겨져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가? 당황스럽지 않은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짓밟힌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 물질주의가 정말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심판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의 시각은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급진적인 변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같으면 그런 급진적 변혁에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기꺼이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급과 심판의 가르침은 또한 하나님과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물론 그 관계에는 경건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주시는 믿음 / Gerry Thomas 신부  
 (미 산호세 교구 사제)

\*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 미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 P. T. Forsyth(영국 복음주의 신학자) -